

잠녀·아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본격화

일본 제2회 아마대집합축제서 잠녀·아마 서미트 진행, 아마 선언도
제주 롤모델 "지역 차원에서 문화 규정·자치단체 노력" 등 주문

등록 : 2010년 10월 06일 (수) 17:00:28
최종수정 : 2010년 10월 06일 (수) 17:00:2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지난달 25~27일 일본 미에현에서 제2회 일본 아마 대집합 축제가 열렸다.

제주도 잠녀와 일본 아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일 서미트가 열렸다.

제주와 일본 등지에서 열렸던 학술 심포지움과 달리 이번 잠녀·아마 서미트는 잠녀와 아마를 주축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달 25~27일 일본 미에현에 열린 제2회 일본 아마 대집합 축제에서는 지난 1회 대회에 이어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주문됐다.

지난해 제주 잠녀와 미에현 시마시·토바시, 가고시마현 등 일본 내 아마 등이 스스로 무형문화유산임을 인식하기 위한 시작점인 서미트가 제안됐고, 올해 윤복희 구좌읍 하도리 잠녀회장이 제주를 대표해 참가했다.

일본 아마와 학계 관계자는 관광자원화는 물론 다양한 전통계승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롤모델로 꼽고 있다.

이번 아마 대집합에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 진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됐다.

일본 문화재청 등에서도 제주 잠녀와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에서 아마 문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하고 국가 무형 민속문화재로 먼저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고시마 대학 나가시마 슌스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잠녀 문화를 집대성할 수 있는 제주의 예를 주목할 만 하다"며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잠녀는 현재 '해녀노래'가 도 지정 문화재에 포함된 것 외에는 별다른 문화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등재 기준 조정으로 '잠녀 문화'의 국가 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무산됐던 해녀축제가 오는 9~10일 구좌읍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은 물론 ㉸제주학회 주관의 제5회 해녀국제학술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아마대집합 축제에서는 "아마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바다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주 잠녀와의 보다 깊은 연대를 통해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정진하겠다"는 내용의 '아마 선언'이 채택됐다.